

요한삼서 개관

1. 개요

요한삼서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성도 가이오에게 보낸 개인적 서신입니다. 이 편지는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갈등, 특히 선교 사역자에 대한 영접과 거절 문제, 그리고 교회 내 지도자의 권위 남용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학적 깊이와 더불어, 사랑과 진리의 조화, 섬김과 권위의 바른 사용이라는 실천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2. 저작 연대

- 대략 AD 85~95 년경
 - 요한일·이서와 같은 시기이며, 에베소에서 노사도 요한이 여생을 보내던 시기입니다.
-

3. 저자

- 사도 요한, 본문에서 스스로를 “장로”라 지칭(1 절). 그는 진리 안에서 형제를 위로하며 교회 내의 문제를 목회적으로 다룹니다.
-

4. 기록 목적

- 가이오의 신실한 섬김을 칭찬하고,
- 선교사적 순회 전도자들의 환대를 격려하며,

- 디오드레베의 독단적 행동을 질책하고,
- 데메드리오의 모범적인 행실을 추천하기 위함입니다.

5. 단락 구분

구분	내용
1-4절	인사 및 가이오의 신실한 믿음과 삶에 대한 칭찬
5-8절	순회 사역자에 대한 환대 권면
9-10절	디오드레베의 교만과 배척에 대한 책망
11-12절	데메드리오의 선한 증거 소개
13-15절	대면의 소망과 마지막 인사

6. 중심 메시지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11 절)

요한삼서는 진리와 사랑이 구체적인 교회생활과 리더십 안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서신입니다. 특히 섬김의 리더십과 환대의 미덕은 오늘날 목회와 교회 운영에도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7. 신학적 이슈

① 교회 내 리더십 갈등

- 디오드레베는 권력을 남용하며 사도 요한과 그의 동역자들을 배척했습니다. 이는 교회 내 권위의 왜곡, 교만한 자기사역화의 위험을 드러냅니다.

② 순회 전도자(선교사)에 대한 지원

- 5-8 절은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영접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교회가 선교와 복음 사역을 적극적으로 후원해야 할 책임을 강조합니다.

③ 선한 본받기와 인격적 증거

- 데메드리오는 “진리로 증거 받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입니다. 이는 신자의 인격과 삶이 진리와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8. 개혁주의적 입장에서의 요한삼서 해석

① 교회 질서와 권위의 정당성

- 개혁주의는 교회 질서와 장로직의 권위를 매우 중시합니다. 그러나 요한삼서는 그 권위가 사랑과 진리에 기초하지 않으면 파괴적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② 선교적 교회

- 가이오처럼 복음 사역을 위해 순회하는 자들을 영접하고 후원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 사명입니다. 이는 개혁주의의 **교회론(Visible Church 의 책임)**과 일맥상통합니다.

③ 진리와 삶의 일치

- 데메드리오의 삶은, 진리가 머리에만 머물러선 안 되며,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성화 교리를 뒷받침합니다.